

지역 소식통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토지 12,541필지 1,139만8,417㎡와 건물 5곳에 대해 지적공부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했다.

또, 토지 1,229필지와 건물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유휴부지로 판단된 65필지에 대해 협업체계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용도폐지 대상으로 판단된 161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예정이다.

매각접토 대상으로 판단된 288필지와 건물 1곳에 대해서는 장애 활용 가치와 보존 가치 여부를 검토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 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동학농민혁명사 발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혁명 발상지의 공지를 높이기 위한 책자가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제2의 동학농민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해농민봉기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서술한 '정읍동학농민혁명사'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책자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의 산하 연구기관인 동학역사문화연구소에서 조광환(소장), 권형주(부소장), 이진우(운영위원)의 공저로 이뤄졌다.

이 책은 그간의 진행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더욱 보완해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감염 차단 총력

## 코로나 긴급 대책회의... 선제 대응·빈틈없는 방역 당부

정읍시가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방역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7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방역 활동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각 해당

국·소장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종교시설과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부서별 대응체계를 보고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감염사태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 대응과 빈틈없는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7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방역 활동 전반을 재점검했다.

시는 각종 모임과 실내활동 증가, 환기 부족 등 동절기 요인이 더해져 지역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력을 집중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한다. 또,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운영을 중지하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음식 제공과 숙박 행사를 금지하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9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시설과 업종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특히, 식사를 동반한 모임과 행사 등은 올해는 멈추고 내년엔 더욱 뜻있게 만나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의용소방대, 격포항 일원 방역활동

부안군(군수 권익현) 남·여의용소방대가 지난 7일 번산면 격포항 일원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나섰다. 이날 방역에는 의용소방대 30여명이 참가해 격포여객터미널을 시작으로 수산물센터 등 상가 곳곳을 방문해 출입문 손잡이와 실내외를 소독했다. 부안군 남·여의용소방대는 매월 첫

주 월례모임을 가져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자 정기모임 대신 방역소독으로 대체하였다. 최기선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부안 인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주말이면 부안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되고 있어 청정부안을 지키기 위

해 방역활동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을 비롯하여 전라북도는 무주·장수를 제외하고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다.

이로써 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은 집합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21시~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점은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 '인센티브'

부안군은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부안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함께 2~5일의 특별휴가를 차등 부여키로 의결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은 어촌계 어장에 대해 어촌계 직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사례 발굴 및 어장의 특성을 반영해 어촌계 직영을 허용함으로써 어촌계 자율성 및 최적의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해양수산과 송정환 팀장이 선정됐다. 특히 송정환 팀장의 규제개선 사례는 행정안전부 규제혁신방안 사

례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안전총괄과 임규현 팀장이 '격포해수욕장 군유지 무단점용상가 숙원과제 해결'로, 사회복지과 최미경 팀장이 '체석강 주변 불법음식점 집단민원 갈등 해결'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박옥선 주무관이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으로, 자치행정 담당관실 김익중 주무관이 '부안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로 장려상을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전북도 대표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노을빛 낭만을 여는 상징게이트'를 제작·설치했다.

## 황홀한 변산 금빛노을 감탄 절로

###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상징게이트 등 볼거리 조성 집중

부안군은 전북도 대표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노을빛 낭만을 여는 상징게이트'를 제작·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징게이트는 전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하나로 조달청 평가에 따라 선정·설치돼 9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상징게이트는 변산해수욕장이 대표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모습을 비둘기가 장막을 열어 사계절 내내 즐거움이 열려있는 장면으로 연출하고 황금빛 석양을 품은 노을과 굽어지는 파도 등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징게이트는 1980년대까지 관광객이 인산오해를 이뤘던 최고의 관광 명소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국립공원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돼 최고관광지의 명성이 급격히 추락해 명맥만 유지하다 재개발로 화려했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군의 염원이 담겨있다.

실제 변산해수욕장은 지난 1983년에 개장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으로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해안을 매립해 만들었으며 1988년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관광객이 인산오해를 이뤘다.

이후 국립공원으로 개발이 제한돼 점차 관광시설이 노후화되고 배후시설이 낙후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이듬해인 해수욕장으로 전락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군의 하나된 노력으로 최근 해수욕장을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키고 지난 2014년부터 재개발을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실시해 2017년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관광지 조성과 함께 전북도와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전북도 대표관광지 변산해수욕장 육성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화장실·샤워장·관리사무소 등 해수욕장 배후시설과 전망대 헬리콥터·한옥정자·산책로 등 체험거리, 야간경관조명·썬라이트·미디어클러스 등 볼거리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을축제와 해넘이축제 등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 고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책자 발간

고창군이 공공건축사업 추진단계를 한눈에 파악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은 최근 공공건축사업의 추진 절차가 복잡해지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라 생기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뉴얼'은 건설공사 일반 건설기술 용역, 설계단계, 공사단계, 유지관리 등 주요 공정별로 구성했다. 또 관계부서를 첨부해 행정절차 이

행에 착오가 없도록 했고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해 향후 일선 실무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청 이종원 건설도시과장은 "매뉴얼 발간으로 공공사업 추진 실무자들의 사업 역량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바란다"면서 "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